2016. 11. 8(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향신문

2016년 11월 08일 (화)
14A면 수도권/제주

임진강 경의선철교 '독개다리' 복원

6·25 이전 철교형태 재현
스카이워크 다음달 개장

한국 전쟁 때 폭파돼 교각만 남아 있는 경기 파주시 임진강 경의선철교 독개다리에 스카이워크(인도교·조감도)가 설치돼 임진각의 새로운 관광시설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분단의 상징물인 독개다리 복원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 조성사업을 벌여 다음달 개장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독개다리는 임진강 남쪽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강 북쪽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 교량으로,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폭파돼 기둥만 남아 있었다. 1953년 휴전협정 조인을 계기로 전쟁 포로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 기둥 위에 철교를 복구해 국군 포로 1만 2733명이 이 다리를 건너 돌아왔다. 휴전 뒤 군인들과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차를 타고 건넜으나 1998년 6월 통일대교 개통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복원된 독개다리는 길이 105m, 폭 5m로, 5개의 교각을 활용해 전쟁 전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한 다리를 걸으며 전쟁의 상흔을 체험할 수 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군부대의 출입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도는 군부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9.9 X 13.5 cm

한국일보

2016년 11월 08일 (화)
14면 수도권

국군포로 귀환 독개다리 스카이워크로 재탄생

6·25 전쟁 때 국군포로 귀환로였던 파주시 문산읍 민통선 내 독개다리(**사진**)가 스카이워크로 재탄생한다. 독개다리는 문산읍 운천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연결하는 경의선 철로로, 국군 포로 1만2,733명이 귀환할 때 이용한 다리다.

경기도는 독개다리(내일의 기적소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해 군과의 협의가 끝나는 12월 중 개장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독개다리는 기존에 남아 있던 5개의 교각을 활용해 '과거, 현재, 미래' 등 3개 구간으로 복원했다. '과거' 구간은 경의선 증기기관차의 객차 형태로 꾸몄고 '현재' 구간에는 경의선 철도레일과 침목을 재현해 놓았다. 바닥에 깔린 매직글라스를 통해 교각의 총탄 자국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미래' 구간은 개방형 전망공간과 휴게시설로 구성됐다.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독개다리는 민통선 내 역사·자연 풍광을 별도 출입허가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관광시설"이라면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통일을 염원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5.8 X 17.8 cm

경인일보

2016년 11월 08일 (화)
02면 종합

임진강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달 개장 오는 12월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과 임진강을 전체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 '임진강 독개다리 스카이워크'가 개장될 예정이다. 독개다리는 경의선 상행선 철교의 일부로 6·25전쟁때 폭격으로 폭파돼 현재는 5개의 교각만 남아있다. 사진은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조감도. /경기도 제공

10.0 X 6.8 cm

경기일보

2016년 11월 08일 (화)
03면 종합

6·25때 국군포로 귀환 '독개다리' 스카이워크로 재탄생 내달 개장

국방부 허가없이 민통선내 출입 가능
임진강 등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기대

국방부의 허가(출입절차)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일대를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12월 개장한다.

7일 경기도는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곳에 관광시설인 내일의 기적소리를 설치해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했다. 도는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함에 따라 연간 600만 명이 찾는 임진강 일대의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일의 기적소리로 재탄생한 독개다리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노선으로,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됐다. 이후 1953년 휴전협정 조인으로 임시 복구해 국군 포로 1만2천73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바탕으로 임진강 일대 방문객에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20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기존에 남아있던 5개의 교각을 활용해 전쟁 이전 당시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구간은 경의선 증기기관차의 객차 형태로 꾸며졌으며 현재 구간은 경의선 철도레일과 침목을 재현했다. 미래 구간은 1층과 2층으로 구분, 개방형 전망공간과 휴게시설로 꾸며졌다.

다음 달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과 임진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 '임진강 독개다리 스카이워크'(인도교)가 개장한다. 사진은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조감도. 연합뉴스

도는 그동안 관할 군부대와 꾸준히 군 순찰로 보강 공사 및 도-군 운영 협의를 거쳐 국방부의 별도 출입허가 절차와 인원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내일의 기적소리는 DMZ일원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 등의 가치를 융합한 복합형 관광콘텐츠다"며 "앞으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일을 염원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14.3 X 17.2 cm

중부일보
2016년 11월 08일 (화)
01B면 종합

6·25 전쟁때 폭파 경의선 철교 독개다리 인도교 설치 '내일의 기적소리' 내달 개장

道, 20억 투입 분단 상징물 복원 경의선 열차체험·총탄자국 확인

6·25 전쟁때 폭파돼 교각만 남아있는 파주시 임진강 경의선철교 독개다리에 스카이워크(인도교)가 설치돼 임진각의 새로운 관광시설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20억 원을 들여 분단의 상징물인 독개다리 복원사업으로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 조성사업을 벌여 다음 달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

독개다리는 임진강 남쪽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강 북쪽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 교량으로,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폭파돼 기둥만 남아있었다.

1953년 휴전협정 조인을 계기로 전쟁 포로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 기둥 위에 철교를 복구하고 그 남쪽 끝에 나무로 임시 다리를 설치해 국군 포로 1만2천733명이 이 다리를 건너 돌아왔다.

독개다리는 임진강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다리로 휴전 뒤 군인들과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차를 타고 건넜으나 1998년 6월 통일대교 개통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복원된 독개다리는 길이 105m, 폭 5m로, 5개의 교각을 활용해 전쟁 전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한 다리를 걸으며 전쟁의 상흔을 체험할 수 있다.

과거 구간은 경의선 증기기관차 객차 형태로 꾸며져 전쟁 전 경의선 열차를 타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현재 구간은 경의선 철도 레일과 침목을 재현하면서 바닥에 특수 유리를 깔아 임진강의 물웅덩이는 물론 전쟁 때 생긴 교각의 총탄 자국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수 있다.

미래 구간은 1층과 2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반개방형 전망공간으로, 끝부분에 강화유리를 부착해 다리 아래와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군부대의 출입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도관계자는 "내일의 기적소리는 분단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 등의 가치를 융합한 관광콘텐츠"라며 "통일을 염원하는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희수기자

11.3 X 16.1 cm

서울경제

2016년 11월 08일 (화)
33A면 전국

민통선 안 관광 자유롭게…임진강 독개다리 복원

6·25전쟁 때 폭파돼 교각만 남아있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경의선철교 독개다리에 스카이워크(인도교)가 설치돼 임진각의 새로운 관광시설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20억원을 들여 분단의 상징물인 독개다리 복원사업으로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 조성사업을 벌여 다음달 개장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독개다리는 임진강 남쪽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강 북쪽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 교량으로 6·25전쟁 때 폭격으로 폭파돼 기둥만 남아있었다.

1953년 휴전협정 조인을 계기로 전쟁 포로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 기둥 위에 철교를 복구하고 남쪽 끝에 나무로 임시 다리를 설치해 국군 포로 1만2,733명이 이 다리를 건너 돌아왔다.

독개다리는 임진강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다리였으며 1998년 6월 통일대교 개통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복원된 독개다리는 길이 105m, 폭 5m로 5개의 교각을 활용해 전쟁 전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18.7 X 5.4 cm

기호일보

2016년 11월 08일 (화)
01A면 종합

분단 아픔~통일… 역사 위를 걷는다

임진강 경의선 철교 독개다리
스카이워크로 복원 내달 개장
민통선 내 경관 자유롭게 조망

경기도는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다음 달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임진각 관광지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됐다.

총 사업비 20억 원(국·도비 각 10억 원)이 투입돼 지난 5월 착공, 이달 3일 준공된 내일의 기적소리는 기존에 남아 있던 5개 교각(橋脚)을 활용해 전쟁 이전 당시 철교의 형태를 재현했다.

관람객들은 '과거', '현재', '미래' 등의 구간으로 구성된 다리를 직접 걸어 보며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역사적 현장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

과거 구간은 경의선 증기기관차의 객차 형태로 꾸며져 20세기 초의 경의선 열차를 직접 타 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전쟁 이전 당시의 경의선 사진자료도 둘러볼 수 있다.

현재 구간에는 경의선 철도 레일과 침목을 재현해 놓았고, 바닥에 깔린 매직글라스를 통해 임진강의 자연 둠벙을 비롯해 전쟁 당시 교각의 총탄 자국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개 층으로 만들어진 미래 구간의 경우 1층은 반개방형 전망 공간으로 구성돼 끝부분 강화유리를 통해 다리 하부와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고, 2층은 휴게시설을 설치해 임진강의 생태환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독개다리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 노선으로,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됐다. 1953년 휴전협정 조인으로 일부를 임시로 복구해 국군 포로 1만2천733명이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분단사의 비극과 아픔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3.3 X 8.0 cm

경기신문

2016년 11월 08일 (화)
03면 종합

민통선 내 관광 자유롭게… 파주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달 개장

〈인도교〉

길이 105m·폭 5m·교각 5개 활용
철교 형태 재현… 전쟁 상흔 체험
분단의 상징물 20억원 들여 복원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로이 조망할 수 있는 파주 독개다리가 스카이워크(인도교)로 새단장, 오는 12월 모습은 선보인다.

경기도는 20억원을 들여 분단의 상징물인 독개다리 복원사업으로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 조성사업을 벌여 다음달 개장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독개다리는 임진강 남쪽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강 북쪽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 교량으로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폭파돼 기둥만 남아있었다.

1953년 휴전협정 조인을 계기로 전쟁 포로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 기둥 위에 철교를 복구하고, 그 남쪽 끝에 나무로 임시 다리를 설치해 국군 포로 1만2천 733명이 이 다리를 건너 돌아왔다.

독개다리는 임진강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다리였다.

휴전 뒤 군인들과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차를 타고 건넜으나 1998년 6월 통일대교 개통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복원된 독개다리는 길이 105m, 폭 5m로, 5개의 교각을 활용해 전쟁 전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한 다리를 걸으며 전쟁의 상흔을 체험할 수 있다. 현재 구간은 경의선 철도 레일과 침목을 재현하면서 바닥에 특수 유리를 깔아 임진강의 물웅덩이는 물론 전쟁 때 생긴 교각의 총탄 자국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래 구간은 1층과 2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반개방형 전망공간으로, 끝 부분에 강화유리를 부착해 다리 아래와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다.

2층은 휴게시설로 탁 트인 곳에 앉아 임진강의 생태환경과 강 북쪽 민통선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철로를 연장, 통일을 염원하는 공간으로의 의미를 담았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군부대의 출입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내일의 기적소리는 DMZ일원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 등의 가치를 융합한 복합형 관광콘텐츠"라며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23.9 X 8.7 cm